

• 4교시 사회탐구 영역 •

[윤리와 사상]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④	①	③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1. [출제의도] 석가모니의 삶의 태도 이해하기

그림의 스승은 석가모니이다. 석가모니는 탐욕[貪], 분노[瞋], 어리석음[癡]인 삼독(三毒)으로부터 괴로움이 생겨나고, 중도(中道)를 실천함으로써 괴로움의 원인을 없앨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석가모니는 쾌락과 고행의 두 극단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2. [출제의도] 맹자와 순자의 입장 비교하기

같은 맹자, 을은 순자이다. 맹자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성선설(性善說)을 주장하였으며, 선천적인 도덕 각각 능력인 양지(良知)를 바탕으로 도덕적 마음을 확충하는 수양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순자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는 성악설(性惡說)을 주장하였으며, 인간의 악한 본성을 선하게 변화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한편 맹자와 순자는 공통적으로 도덕적 삶을 살기 위해 지속적인 수양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3. [출제의도] 소크라테스와 프로타고라스의 입장 비교하기

같은 소크라테스, 을은 소피스트인 프로타고라스이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이 영혼의 성찰을 통해 참된 앎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쾌락과 명성보다는 정신적 가치를 중시해야 한다고 보았다. 프로타고라스는 보편적인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며, 경험을 통해 지식을 파악해야 한다고 보았다.

4. [출제의도] 정약용의 입장 이해하기

제시문은 정약용의 주장이다. 정약용은 사람의 본성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마음의 경향성이라고 보았다. 또한 인의예지(仁義禮智)인 사덕이 마음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사단을 실천함으로써 후천적으로 형성된다고 주장하였다.

5. [출제의도] 칸트와 밀의 입장 비교하기

같은 칸트, 을은 밀이다. 칸트는 행위의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것은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동기라고 주장하였으며,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는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다. 밀은 쾌락의 양적 차이뿐만 아니라 질적 차이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누구나 질적으로 높고 고상한 쾌락을 선호할 것이라고 보았다.

6. [출제의도] 이황과 이이의 입장 비교하기

같은 이황, 을은 이이이다. 이황은 이와 기가 서로 발할 수 있다는 이기호발설(理氣互發說)을 주장하였으며, 사단과 칠정의 연원이 서로 다르므로 양자를 분명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이는 기가 발하고 이가 기를 탄다는 한 가지 길만이 옳다는 기발이승일도설(氣發理乘一途說)을 주장하였으며, 사단은 칠정 가운데 선한 측면만을 가리킨다고 보았다.

7. [출제의도] 스피노자의 입장 이해하기

제시문은 스피노자의 주장이다. 스피노자는 신 또는 자연은 모든 것을 필연적으로 존재하게 하는 내재적 원인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신 또는 자연을 이성적으로 관조할 때 인간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보았다.

8. [출제의도] 동학파 위정척사 사상의 입장 비교하기

같은 동학 사상가인 최제우, 을은 위정척사 사상가인 이항로이다. 동학은 모든 사람이 자기 안에 한울님을 모시고 있으므로 평등하다고 보고, 모든 차별이 사라진 이상 사회를 현세에서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정척사 사상은 유교적 가치 체계를 지키고 서양의 종교와 문물을 배척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양의 정신과 서양의 우수한 과학 기술을 조화시켜야 한다고 보는 것은 동도서기론(東道西器論)이다.

9. [출제의도]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 비교하기

같은 플라톤, 을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플라톤은 영혼의 세 부분이 조화를 이룰 때 정의의 덕이 실현된다고 주장하였으며, 정의로운 영혼을 지닌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품성적 덕의 형성을 위해 실천적 지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며, 과도함과 부족함 사이의 적절한 상태인 중용이 모든 감정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한편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공통적으로 덕은 이성을 탁월하게 발휘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10. [출제의도] 왕수인과 주희의 입장 비교하기

같은 왕수인, 을은 주희이다. 왕수인은 앎과 행함을 본래 하나라고 주장하였으며, 앎은 행함의 시작이고, 행함은 앎의 완성이라고 보았다. 주희는 앎과 행함은 항상 서로 의지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앎과 행함에는 선후(先後)와 경중(輕重)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한편 왕수인과 주희는 공통적으로 앎과 행함의 일치를 추구해야 한다고 보았다.

11. [출제의도] 사르트르와 키르케고르의 입장 비교하기

같은 사르트르, 을은 키르케고르이다. 사르트르는 인간의 본질을 구상하는 신이 없기 때문에 본질이 미리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키르케고르는 종교적 실존에 이르러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 행동할 때 절망을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사르트르와 키르케고르는 공통적으로 인간은 주체적인 결단을 통해 참된 실존을 회복해야 한다고 보았다.

12. [출제의도] 에피쿠로스학과 스토아학파의 입장 비교하기

같은 에피쿠로스, 을은 스토아학파 사상가인 에픽테토스이다. 에피쿠로스는 감각적 쾌락보다 정신적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성적 속고를 통해 욕구를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개인의 평온한 삶을 위해 공적인 삶을 회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에픽테토스는 자연의 필연적 질서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욕구의 지배에서 벗어나 이성에 따른 삶을 살아야 한다고 보았다.

13. [출제의도] 아우구스티누스의 입장 이해하기

제시문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장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은 신의 은총을 통해 원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신을 사랑하는 인간은 천상의 나라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악은 신의 창조물이 아니라 인간 행위의 결과물이라고 보았다.

14. [출제의도] 원효의 입장 이해하기

제시문은 원효의 주장이다. 원효는 일심(一心) 사상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론과 종교의 주장을 조화시키는 화쟁(和諍)을 주장하였으며, 일심으로 보면 참 그대로의 측면[眞如門]과 무명(無明)에 따른 분별을 조건으로 생멸하는 측면[生滅門]은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일심을 깨달아 모든 중생을 구제하고 자비를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5. [출제의도] 장자의 입장 이해하기

가상 편지를 쓴 사상가는 장자이다. 장자는 도(道)의 관점에서 일체의 차별이 없는 절대 평등의 경지[齊物]에 도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세속을 초월하여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정신적 자유의 경지[逍遙]에 도달해야 한다고 보았다.

16. [출제의도] 홉스와 로크의 입장 비교하기

같은 홉스, 을은 로크이다. 홉스는 각 개인이 비참한 전쟁 상태인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자기 생명을 보존하고 평화를 획득하기 위해 계약을 맺어 국가를 만들었다고 보았다. 로크는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자연법을 집행할 권리를 지니며, 재산에 대한 자연권을 가지지만 그 향유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재산을 더 잘 보존하기 위해 계약을 맺어 국가를 만들었다고 보았다. 한편 홉스와 로크는 공통적으로 국가는 인간이 자신의 생명 보존을 위해 만든 수단이라고 보았다.

17. [출제의도] 듀이의 입장 이해하기

제시문은 듀이의 주장이다. 듀이는 성장 그 자체가 유일한 도덕적 목적이라고 주장하였으며, 도덕적 지식은 유용한 결과가 예상되는 일종의 가설이므로 언제든지 수정되고 재구성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도덕적 지식은 문제 상황을 개선하는 수단이라고 주장하였다.

18. [출제의도] 흄과 데카르트의 입장 비교하기

같은 흄, 을은 데카르트이다. 흄은 이성만으로는 도덕적 행위를 유발하는 동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타인의 행복과 불행에 대한 공감 능력이 도덕성의 기초라고 보았다. 데카르트는 방법적 회의를 통해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명제를 찾고 이것을 철학의 제1원리로 확립해야 한다고 보았다.

19. [출제의도] 공자와 노자의 입장 비교하기

같은 공자, 을은 노자이다. 공자는 통치자는 형벌에만 의지하지 않고 도덕과 예의로 백성들을 다스려야 한다고 보았다. 노자는 통치자는 인위적인 다스림이 없는 정치[無爲之治]를 통해 백성들을 무욕한 상태로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공자와 노자는 공통적으로 통치자는 백성들이 도(道)에 따른 삶을 살도록 해야 한다고 보았다.

20. [출제의도] 유토피아 사회 이해하기

제시문은 유토피아를 이상 사회로 추구한 모어의 주장이다. 유토피아는 소유와 생산의 평등이 실현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며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는 사회이다. 유토피아에서는 재화가 풍족하고 구성원은 필요 이상의 노동을 하지 않는다.